

표준화 STANDARDIZATION

제70차 정보통신표준총회 개최

- 정보통신단체표준 45건 채택, 15건 폐지,
방송통신표준(KCS) 건의대상 4건 선정 -

○ 제70차 정보통신표준총회가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면의결로 개최됐다. 금번 정보통신표준총

회에서는 '디지털 케이블 3D 방송 송수신 정합', '시청자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등 34건을 신규 표준으로 제정하고, 'IPTV 용 교환가능한 CAS(iCAS)' 표준 등 11건을 개정 표준으로 채택했다. 또한, iCAS, Micro-USB 충전 표준 등 총 4건을 방송통신표준(KCS)로 건의키로 결정했다.

제79차 운영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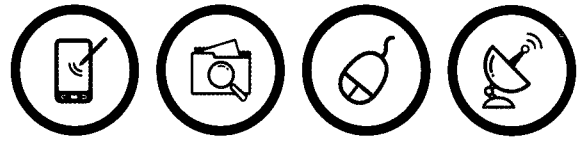
- CPS 프로젝트그룹 신설 등 -

○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제79차 운영위원회가 프로젝트 그룹 신설 등을 주요 안건으로 2011년 9월 20일 TTA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IT 응용기기의 무선전력 전송 및 응용' 프로젝트그룹과 'CPS(Cyber Physical Systems)' 프로젝트그룹 신설을 심의했다. 이 중 CPS 프로젝트그룹은 기반소프트웨어 기술위원회(TC6) 산하에 신설하기로 하고 IT 응용기기의 무선전력전송 및 응용 프로젝트그룹은 신설을 보류했다. 그리고 현재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관련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3개 표준화위원회 간 표준화 협의 및 협력을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프로젝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3개 프로젝트그룹의 표준화 활동영역(ToR)을 최근 기술 동향을 반영해 변경했으며, 이해관계인이 제안한 신규 표준 제정·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237건의 표준화과제를 채택하고, 표준화 추진 필요성이 소멸된 25건의 표준화과제를 폐지했다.

제5차 APG 국제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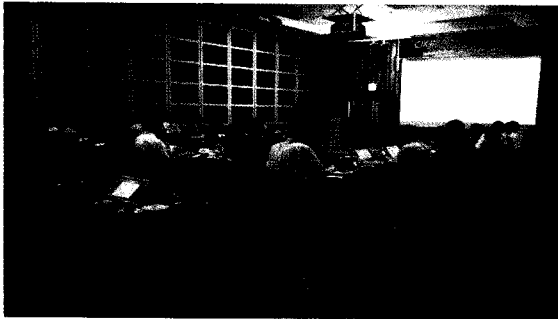
- 정보통신 표준화 자원간 연계 활성화 도모 -

○ '2012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 대비한 아·태지역의 최종 회의인 '제5차 APG-12 회의'가 부산롯데 호텔에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36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방송, 항공, 우주, 위성 등의 분야에서 총 3.8GHz 대역폭의 신규 주파수 분배를 위한 33개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이 공통 관심사인 만큼 차기회의(WRC-16)에서 국제 공통주파수가 추가 확보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졌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APG-12 회의는 신규 주파수 발굴 및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중요한 회의이며 앞으로 아·태지역이 IT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 방통위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정부와 민간의 전파분야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총 27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반영했다.



제29차 한중일 IMT 표준협력 국제회의 개최

◎



TTA는 2011년 9월 6일부터 8일 동안 서울에서 제29차 한중일 IMT 표준협력회의(CJK IMT WG)를 개최했다. 한중일 IMT 표준협력회의에서는 한국(TTA), 일본(ARIB), 중국(CCSA)이 협력하여 한중일 삼국 간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화 추진에 대한 공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아태지역의 모바일 트래픽 분석을 통한 향후 미래이동통신 스펙트럼 예

측을 담은 한중일 백서* 개발을 최종 완료하고, 승인했다. 이번에 완성된 백서는 10월 인도 고아에서 개최되는 ITU 이동통신 작업반(WP5D) 회의에서 공동기고문을 제출하여 전 세계 모바일 트래픽 예측 보고서(IMT. UPDATE)에 반영을 위해 한중일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중순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무선통신 그룹(AWG) 회의에도 한중일 공동으로 제안하여, 미래 이동통신에 대한 아태지역의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사물지능통신(M2M) 분야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공조를 위해 차기 한중일 표준협력 총회(2012년 3월 일본 예정) 전후로 하여 한중일 공동 M2M 워크숍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2012년 3월 14~16일 일본에서 한중일 표준협력 총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Forecast of mobile broadb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한 TTA-ITU간 협력협정 갱신

◎

ITU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TTA 또한 ITU와 함께 개도국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TTA는 2008년부터 IT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개별 국가의 표준화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표준화격차해소 워크숍 공동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ITU와 TTA

는 2011년도 공동협력 사업으로 개별 국가의 표준화역량 측정 및 결과의 공표, 개도국 표준화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지난 8월 4일 기존 협력협정을 갱신했다. TTA는 동 사업이 개도도상국의 IT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격차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화 STANDARDIZATION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 방향 워크숍 개최

◎



지난 8월 29일
부터 30일까지
리솜 덕산 리조
트에서 포럼 연
구책임자, 사무
국장, 간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방
향 워크숍' 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총 38개의 2011년
ICT 표준화전략포럼들 간의 핵심 표준화 기술이슈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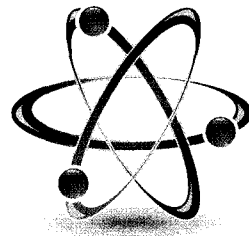
한 정보 교류, 우수 포럼 사례발표 등 포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규 포럼의 활동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사에서는 지원 포럼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TTA가
ICT표준화 환경변화와 표준화 전략맵 Ver.2012,
TTA 표준화 절차 및 TTA 표준 작성 방법 등을 소개했
다. 2010년 국내외 활동 우수 포럼인 FID/USN융합표준
포럼, 임베디드SW기술포럼의 사례발표와 신규지원
포럼인 코리아NFC표준포럼 및 스마트TV포럼의
운영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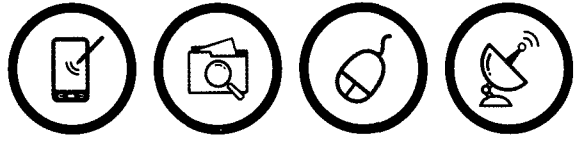
개도국 표준자문프로그램 제도 자문 실시

◎

TTA는 20년 동안 축적해 온 표준화 경험과 노하우를
아태지역 개도국에 자문함으로써 개도국의 표준화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도국자문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11년에는 지난 7월 태평양 도서
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준기술자문에 이어, 8월 15일
부터 18일까지 파푸아뉴기니 통신규제청을 대상으로
표준화제도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표준화제도자문은
표준화 법제도, 정책/연구개발, 추진체계, ITU 대응체계
등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현황분석 및 제외국에 대한
사례연구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
국 정부가 구현 가능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향후 온라
인 협의를 통해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에 최종
자문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국 정부는 동 자문

결과를 자국 정책개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에는 현지 국영방송 및 다수
의 신문사가 자문배경 및 내용 등을 인터뷰하여 보도하
는 등 동 자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교육 및 행사

- 한중일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스펙트럼 국제 워크숍 -

⊙

지난 9월 6일 TTA에서는 4세대(4G) 이후 미래 이동통신(Future IMT) 기술, 서비스 및 스펙트럼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스펙트럼 국제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이동통신의 전망, LTE 서비스, 미래이동통신 기술 및 스펙트럼 등 3개의 세션과

한중일 3국의 700MHz에 대한 상황에 대한 1개의 패널 토의로 구성되었다. 한중일의 스펙트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심층적 방향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TTA는 IMT-Advanced 국제 표준화 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기술 및 표준화 전반에 대한 동향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 유헬스 표준화 및 비즈니스 확산 이슈 세미나 -

⊙

9월 7일 TTA에서는 유헬스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헬스 표준화 및 비즈니스 확산 이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유헬스 서비스 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전망’, ‘IEEE 11073-20601 튜토리얼’, 측정된 데이터를 유헬스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건강정보 중계부(서버 프로토콜 표준 소개 및 적용 사례)’, ‘미디어 관점의 유헬스 서비스 현황 및 확산 이슈’, IT 융합 헬스케어기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한 ‘유헬스 관련 연구단 소개(IT 융합 헬스케어기기 연구단)’ 등 모두 5개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IEEE 11073 Personal Health Device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IEEE 11073-20601 튜토리얼’이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좋은 호응을 얻었다.

- 정보통신표준화 대학 특강 -

⊙

TTA는 지난 9월 21일 영남대학교/대구대학교를, 22일에는 경북대학교를 방문해 498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표준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ICT 표준화의 중요성, 역할, 과정 등 표준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강의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HTML5, 차량통신기술, VoIP, 임베디드 SW 등의 주요 표준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전문강의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루어졌다. 대학 및 학생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정보통신표준화 인식과 함께 TTA의 역할을 홍보하고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험인증 TEST&CERTIFICATION

TTA-(주)에이치시티 MOU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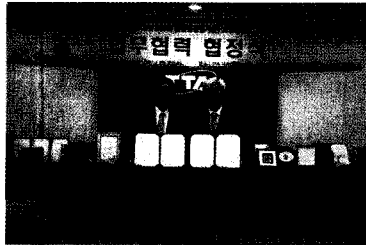
⊙



TTA는 지난 7월 25일 (주)에이치시티(이하 HCT)와 2004년 10월 체결된 MOU를 갱신했다. TTA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무선적합등록시험 자격획득, 신입 주종욱 시험인증연구소장 부임 및 HCT의 대표이사 변경 등을 반영해 '시험 인증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TTA는 HCT를 시험인증장비 교정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번 MOU 이후 강제성시험 대상 기기에 대한 양 기관의 시험인증 업무 협력 강화에 따라 TTA가 수행하고 있는 자율인증시험분야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TRI와 시험인증 협력협정 체결

⊙



지난 8월 31일 TTA는 ETRI와 시험인증 업무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ETRI 연구개발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업무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고의 표준화·시험인증 기관인 TTA와 연구기관인 ETRI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품질이 향상된 연구개발물을 업체에 기술이전함으로써, 제품 개발기간의 단축과 개발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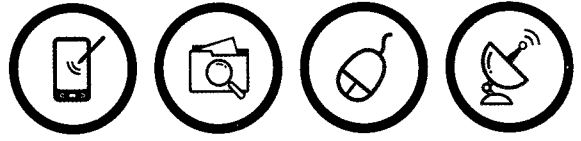
국산 방송용 LCD모니터 TTA 최고등급(Class1) 품질인증 최초 수여

⊙



TTA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는 지난 9월 14일, 방송용 비디오 모니터로는 국내 최초로 티브이로직 모니터(모델명: XVMM-245W)에 방송장비 인증을 수여했다. 이번 인증된 제품은 화질평가용으로 사

용되는 최고품질의 Class1 인증기준을 통과한 precision급 모니터로서 해외 유명 제조사의 방송용 비디오 모니터에 비해 손색없음이 확인되었다.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의 인증기준은 방송사, 제조사, 학계, 연구소, TTA 모니터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방송사의 구매사항과 유럽방송연합(EBU)의 권고사항 및 신뢰성 등



9월부터 Wi-Fi 인증시험서비스 실시

◎



TTA는 지난 5월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하고, 9월 7일부터 무선랜 제품에 대한 Wi-Fi 국제공인 인증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 TTA는 Wi-Fi Alliance의 전 세계 15번째 국제공인시험소이며 최초의 국내 시험소로서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 이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Wi-Fi 인증은 무선랜 제품에 대하여 Wi-Fi Alliance의 엄격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후, 인증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Wi-Fi CERTIFIED™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각종 무선 공유기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 및 디지털 TV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금번 TTA의 Wi-Fi 공인시험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Wi-Fi Alliance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선랜 기술전반 및 인증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SGS 및 TUV라일란트 등 외국 시험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던 Wi-Fi 인증시험의 해외 시험기관 의존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 포함한 국제수준의 규격이다. TTA는 방송용 모니터 품질 등급을 Class1(최상), Class2 및 Class3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TTA는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 통해 성능 및 신뢰성을 검증받은 인증획득 방송장비들이 방송사 등 구매자들로부터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VESA, 디스플레이포트 국제공인시험기관 국내 최초 지정

◎



디스플레이포트 로고

TTA는 2011년 9월 7일 국내 최초로 VESA¹⁾의 디스플레이포트(DisplayPort) 국제공인시험소(Test House)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포트를 장착한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TTA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VESA에서 발행하는 디스플레이포트 인증 로고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VESA는 PC, 워크스테이션 및 가전 산업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시험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디스플레이포트는 VESA에서 채택한 차세대 개방형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최대속도 21.6 Gbps를 제공하여 3D 및 UHD²⁾ 영상 전송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 중인 DVI³⁾ 및 VGA⁴⁾ 인터페이스를 대체할 기술이다. TTA는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이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만 인증 받아야 했던 불편함과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물류비용 등을 줄여주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1)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비디오 전자 표준 협회 비디오와 멀티미디어 장치의 표준화 단체

2) UHD(Ultra High Definition):

HD(고선명) 보다 16배 이상 해상도를 제공하는 디지털 비디오 포맷

3)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VESA 표준

4) VGA(video graphics array):

아날로그 방식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IBM 표준

시험인증 TEST&CERTIFICATION

제1회 디지털 방송 신기술 발표 및 신제품 전시회 개최

◎



TTA 방송시험인증단은 지난 8월 1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 SO, PP, 장비업체 등 150여 명의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방송 신기술 발표 및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전시된 5개 품목

의 신제품은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의 품질 인증을 통과한 국산 방송장비로서 방송사, 제조사, 학계, 연구소, TTA 등 방송장비 전문가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엄격한 품질 요건과 신뢰성, 국제 수준의 성능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통과한 제품들이다. 향후 개최될 2회 전시회에서는 국내 방송장비 구매촉진과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사, SI, 지자체, 학교, 종교계, 건설사 수요처를 초청하여 디지털전관방송, 앰프, 스피커, 마이크, 헤드엔드, 변조기 등 주요 방송장비를 전시할 예정이다.

IBC 2011에서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와 TTA 인증 방송장비 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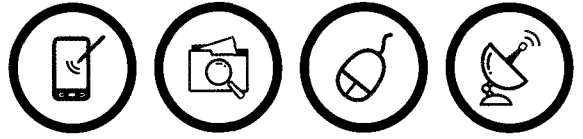


TTA 방송시험인증단은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2011

IBC 전시회'에 참석해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와 TTA 인증 방송장비를 전시 홍보했다. TTA는 IBC* 전시장내 한국관(Korea Pavilion)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의 시험인증대상장비, 시험인증환경, 대외협력체계, 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를 소개하였고 TTA 인

증 제품을 홍보했다. TTA에서 인증한 진명통신(주)의 변조기와 중계기, (주)컴픽스의 문자발생기, 오픈스택(주)의 H.264 인코더, (주)답스의 변조기는 TTA 부스를 방문한 해외의 방송사, 장비제조사, 방송플랫폼 구축 사업자, 지상파 및 위성 방송 서비스 사업자, 시험장비 제조사, STB 제조사 등에 현장 시연을 통해 소개되었다. TTA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의 플랫폼 구축 사업자, 방송사 등에 TTA인증 방송 장비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국제방송장비전시회)



교육 및 행사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및 CSTS 자격시험 실시-

◎

TTA는 SW 테스트 전문기술 보급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제37차 초급교육' 및 '제38차 초급교육'을 개최했다. '제37차 초급교육'에서 20여 명, '제38차 초급교육'에서 60여 명의 SW 테스트 엔지니어 및 개발자가 참가한 가운데 테스트 기초 이론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었다. 또한 SW 테스트 분야의 고급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된 '제20차 CSTS 일반과정 자격시험'에서는 총 21명이 응시하고, 제21차 CSTS 일반과정 자격시험에서는 총 64명이 응시하여 CSTS 자격증에 대한 테스트 관련 종사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은 초급과정 교육이 10월, 11월에 개최 될 예정이며, 중급과정 교육은 11월에 개최 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및 CSTS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tta.or.kr) 하단 STEPS(SW테스트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차순일 팀장(031-724-0186, sicha@tta.or.kr)

김정현 선임(031-724-0194, kimjh@tta.or.kr)

